

# 1.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 (수능 특강 p.18)

## 단락 분석

(1단락)

①국제 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 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 대로 소급된다. ②신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월츠는 국제 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 달리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③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 속에서 각 국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은 상충하게 되고, 결국 각 국가는 자조(自助), 즉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④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상태에 따라 국제체제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 체제가 셋 이상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다극 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 ① 국제 정치학이라는 분야에서 **구성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할 건가봐.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와 관련있는 것 같으니, 이 셋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읽어내려가보자.
- ② 신현실주의부터 설명하고 있어. 국내정치와의 **차이점**(정부 vs 무정부)도 정리하자.(차이점은 항상 물어보잖아)
- ③ 문장이 제법 길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거야. 세계정부(실제로 없어..만화내용이야..)같은 중앙 권력이 부재하니 각 나라들이 서로 살 궁리를 하면서 다툰 수밖에 없게 되고, 싸움(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력같이 이길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려 한다는 거지.
- ④ 신현실주의 월츠는 위에서 얘기한 군사력이나 재력같은 **물질적 능력**에 따라 국제체제의 균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힘 썬 나라들(미국, 러시아, 중국..) 위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냉전체제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해가 쉬울거야. 그리고 힘 썬 놈이 셋 있을 때보다는 둘만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았어. (셋일 때 싸움 벌일 확률이 더 높아서 그런가?)

(2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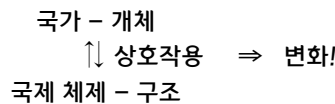
①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자조를 강조했던 신현실주의의 비관적 국제 정치관과 차이를 보였다. ②이 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이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또한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 간의 부정 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그리고 이러한 국제 제도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 ① 이번에는 1단락에서 설명할 거라고 예고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쓴이가 둘 이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가며 읽어야 한다는 점이야. 신현실주의에서 설명했던 **자조**를 신자유주의의 **협력**과 대조해서 신현실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비해 더 비관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해.
- ② 이전 문장과 부드럽게 이어지네, 나라끼리 항상 싸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할 일도 있다고 보았어.
- ③ 국제 체제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국제기구나 협약같은 **국제 제도**를 수립해 국가들이 서로 덜 싸우고 협력하도록 할 수 있대.
- ④ 위 문장과 거의 비슷해.

(3단락)

①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 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한 이론들이었다. ②그래서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의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분석들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③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성주의가 부각되었다. ④구성주의를 주도했던 윈트는 월츠와 마찬가지로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를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국제체제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변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⑤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며, 이때 정체성이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신념 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⑥윈트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 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 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 ① 3단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국제 체제의 기존 질서 당연시)을 얘기하네? 바로 감 잡아 하해. '아, 이제 구성주의 얘기할 거구나. 구성주의는 또 애네들이랑 다른가보다. 국제 체제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나?' 라는 **예측**이 필수야!
- ②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국제 체제를 무정부 상태라고 당연시했기 때문에 냉전 종식과 이후의 국제 정치 상황을 예측 및 분석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정치 이론**이 필요하겠지?
- ③ 드디어 **구성주의** 등장!
- ④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를 전제한 것은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와의 **공통점**이네. 하지만 무정부상태가 고정적인 게 아니고 **변화**한다고 보았어. 이 문장부터 설명이 살짝 어려운 느낌인데 집중해서 보자.
- ⑤ 국가와 국가체제가 상호작용하면서 무정부 상태가 변화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를테니까 정의도 해주고 있네. 정의는 항상 표시해놓자. (선지에서 물어보잖아)
- ⑥ 살짝 앞송달송한 문장인데, 4단락까지 읽다보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전 문장과 연결지어 정리할 수는 있어.



(4단락)

①그는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세 명의 특징적인 사상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②그에 따르면, 첫 번째 홉스적 문화는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여 있다. ③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자초의 원리에 따라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두 번째 로크적 문화에서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에 경쟁이 존재한다. ⑤이 문화에서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⑥세 번째 칸트적 문화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⑦이 문화에서는 국가들 간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① 3단락 구성주의 윈트의 견해가 계속 이어져. 국제 체제인 **무정부 상태가 국가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건가봐. 이전 문단 내용과 잘 이어 읽어갈 수 있겠지?
- ② 먼저 **홉스적 문화**에 대해 설명하네. 신현실주의가 전제한 것이라 했으니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거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실제로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의 전제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하고 지나가자.
- ③ 1단락에 신현실주의에서 말했던 내용과 동일해.
- ④ 이어서 **로크적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경쟁이 존재하는데, 경쟁이라는 것이 완전한 적대감과 완전한 우정 그 사이인가 봐. (노래 제목이 떠오르네..)
- ⑤ 그래서 때에 따라 갈등도 하고 협력도 하는 것 같아.
- ⑥ 마지막 **칸트적 문화**.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호적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임을 알 수 있어.

(5단락)

①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도,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 제도도 아니었다. ②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윈트는 소련 내부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냉전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③ 그리고 국제 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전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반박하며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로, 그리고 칸트적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 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①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이제까지 잘 파악했으니 마지막도 어렵지 않을 거야.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중시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있어. 친절하지? 수능에서는 이런 친절한 서술은 기대하지마...
- ② 앞에 두 이론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냉전 종식의 요인**을 구성주의에서는 **정체성의 변화**라고 보았다. 여기서 정체성은 3 단락에서 얘기한 국가의 정체성이겠지?
- ③ 그리고 국제 체제가 영구적, 그러니까 변화 불가능한 갈등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 신현실주의와 달리 **국제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어. 앞 문장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한다고 보았으니,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국제 체제도 당연히 변화. 3 단락, 4 단락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야.
- ④ 구성주의의 **의의**를 말하면서 끝!

구조도 정리

이론	공통점 및 차이점	
신현실주의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 전제	냉전체제 종식 예측 실패 국제 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시
신자유주의		국가 간 이익 상충 → 자조 → 물리력! 국가 간 협력 → 국제 기구
구성주의		냉전 종식의 중요 요인 제시 - 정체성 변화 국제 체제가 변화
		무정부상태의 변화 1) 홉스적 문화 → 2) 로크적 문화 → 3) 칸트적 문화

배경지식 더하기

1) 양극 안정론과 다극 안정론

신현실주의자 - 양극 안정론 - 다극 체제는 강대국의 수가 많아 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음  
양극체제는 강대국 수도 적고 구조도 단순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음.

신자유주의자 - 다극 안정론 - 다극 체제 속에서 국가 간 상호작용이 복잡, 중층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심각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적음. 국가간 협력 기회도 증가해 적대익식 완화 가능. 다수의 강대국의 행동 예측이 어렵기에 국가들이 선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신중하게 행동.

2) 냉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한 국가들 간의 대결 구도 형성.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두 진영 간 전쟁에 버금가는 대립 양상이 지속되어 cold war라는 이름이 붙여짐. 1989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 선언 이후 냉전체제 종결.